



하얀 피전을 맞추까, 노란 피전을 떨어뜨릴까

짜릿한 손맛과 쾌감을 만끽하고 싶다면 6월엔 클레이 사격장을 찾아가 볼 것. 날아가는 표적을 따라가며 맞추는 클레이사격의 매력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어깨로 전해지는 격발의 진동에 있다. 피전이 산산조각날 때 느끼는 쾌감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최적의 방법이며, 집중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 무거운 총(3.2kg)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단련 효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결단력과 자제력,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표적인 피전은 지름 11cm, 두께 2cm, 무게 100g 안팎으로 재질은 석회가루 혼합물이며, 날아가는 속도는 시속 40~80km이다. 탄환 한 발에는 은단 크기의 산탄 300~400개가 들어 있으며, 발사 시 직경이 50cm 정도로 퍼지며 날아가, 표적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다. 사격 법은 단순·명료해 초보자도 한 달 가량을 배우면 간간이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

더구나 군대 시절 능수능란하게 타깃을 명중시킨 경험이 있다면 단숨에 클레이사격 명장이 될 수 있다. 사격인구의 대부분이 클레이사격 애호가라고 할 정도로 클레이사격의 인기는 높다. 일반 사격과 달리 움직이는 표적(피전)을 맞추는 재미가

있고, 적중할 때 피전이 터지는 쾌감이 크기 때문이다. 클레이사격은 1856년 영국의 귀족 헌팅필드가 새장 속 비둘기를 날리며 쏘아 맞추는 게임에서 유래했다. 동물 표적에 대한 여론비난이 일자 타깃을 유리알로 대체했으며 이후 미국에서 진흙으로 만든 표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클레이사격이란 이름이 여기서 비롯됐다.

요즘 사용하는 표적은 점토를 구워 만든 지름 11cm, 높이 2.5cm, 무게 105g의 둥근 접시 모양이지만 이름은 여전히 '피전'이다. 색상은 오렌지색, 흰색, 검은색 세 가지이며 선명한 형광 오렌지색이 마니아들로부터 선호되고 있다.

산야를 가득 메우는 저 총성은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리는 축포다. 우리가 클레이사격장을 찾는 이유는 움직이는 표적(Pidgeon)을 맞추는 재미가 자못 크기 때문이다. 산탄이 타깃에 적중할 때 터지는 쾌감이 그 어떤 사격보다 우수한 클레이사격의 매력을 살펴본다.

이더티이일십 문의 국민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02-971-9418)

누구를 위하여 총성은 울리나!
클.레.이.사.격.



가장 흑독하고 가장 흥미로운 격발의 순간

사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이다. 기본자세는 다른 사격자세와 동일하며, 단 두 눈을 뜨고 평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개머리판을 뺄 때 밀착시킬 때 고개를 기울이면 안 된다. 총은 어깨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허리를 이용해 표적을 따라가며 숨은 크게 들이마시고 반쯤 내쉬 다음 숨을 멈춘 상태에서 표적을 조준해 쏜다. 이때 총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명중의 최대 조건이다. 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개머리판에서 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클레이사격 경기는 트랩과 더블트랩, 스킵트로 나뉜다. 트랩은 15m 전방 땅속 방출기에서 솟아오르는 접시를 쏘아 맞히는 경기다. 전방 45도 각도 안에서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빠른 속도(시속 80~90km)의 접시가 튀어나오므로 탁월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접시가 70m를 날아가는 동안 한 발도 맞지 못하면 재사격을 할 수 있다.



활발히 운영되는 클레이사격

동호회는 13~14개 정도며 클레이사격 인구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동호회원으로 가입하면 클레이사격 1라운드(25발 기준)에 드는 비용은 1만 8,000~2만 원 선이며, 보통 한 번 사격할 때 2, 3라운드를 한다. 춘천, 화성, 창원, 제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이 아니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간단한 교육 이수 후 사격을 할 수 있다. 클레이사격이 레포츠라고는 해도 결국 총을 다루는 일이다. 고막을 찢을 듯한 총성과 화약연기, 어깨를 강타하는 개머리판의 반동이 제법 크다.

사대에 서면 엄격한 규칙 아래 총을 다루고, 표적을 향해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사격은 정신수련이 중요해서 집중력과 자제력, 순간 판단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정확한 사격, 제대로 쏘고 제대로 스트레스를 깨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신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집중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 마련이다. 사대에서는 순간 타깃에 집중하고 잡아야 할 때와 쏘야 할 때를 스스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흑독하고도 흥미로운 순간이다. ☺

더블트랩은 전방에

서약간 느린 속도로 떠오르는 두

개의 접시를 맞히는 경기. 스킵트는 사대 양

쪽에 설치된 지상의 시설(하우스)에서 튀어나와 가로질

러 날아가는 접시를 8개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쏘아 맞힌다. 트랩은

겨냥하고 있다가 쏘지만, 스킵트는 개머리판을 허리에 내리고 있다가 접시를 본

뒤 총을 겨냥 맞춰야 하므로 특히 순발력이 필요한 종목이다.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은 가격이 250만 원 정도지만 처음에는 총을 구입하지 않고 사격장에서 빌

려 쓰는 게 보통이다. 다른 장비도 사격장에서 모두 대여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어디서 쏠 것인가?

물론 어느 장소에서 총을 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격수의 총기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과 사격이 시작되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푸른 초목이 펼쳐진 사격장에서 확인해 볼 것.

- 경기도종합사격장 |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 ☎ 031-352-6056
- 충북종합사격장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 ☎ 043-213-7041
- 대구종합사격장 |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 ☎ 053-312-2000
- 창원종합사격장 | 경남 창원시 퇴촌동 | ☎ 055-282-0900
- 전북종합사격장 |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 ☎ 063-643-0104
- 나주종합사격장 | 전남 나주시 안창동 | ☎ 061-333-5857
- 문경사격장 | 경북 문경시 불정동 | ☎ 054-553-0001
- 횡성스포랜드 |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 ☎ 033-344-2500
- 대유사격장 |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 ☎ 064-738-2704